



‘택시 운전자’ 속 그곳 택시 타고 달려볼까

영화 흥행 속 촬영지 관심 고조

광주 진입 전 군인 만난 장성 호남고속도로 폐구간 백미러 고친 순천 성동카공업사...여수 중앙동 다방

개봉 7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자’의 흥행에 영화에 등장하는 촬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운전자’는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자 만섭(송강호 역)이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아무 것도 모른 채 광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속에서 만났던 광주·전남지역의 촬영장소를 알아보자.

◇장성 폐고속도로
택시운전사가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첫 진입하려는 시점에서 군에 의해 폐쇄된 고속도로가 찍힌 장소. 광주 인근 장성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폐 도로로 수년 전 인근에 직선도로가 생기면서 폐쇄됐다.

◇성동카공업사
주인공인 택시운전자 김사복(송강호 역)이 영화 초반 택시 백미러를 고치던 곳이다. 영화 속에서는 서울에 있는 카센터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순천에 있는 카센터다.

가게 이름처럼 순천 성동로터리 근처에 있다. 이름도 ‘성동카공업사’를 그대로 썼다. 간판만 옛것처럼 보이게 위해 살짝 고쳤을 뿐 나머지 풍경은 하나도 손을 안 댔을 만큼 옛날 그대로 남아 있다.

◇‘가나다’ 다실
영화 속 또 다른 주인공인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 역)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기자(정진영)를 만나는 장면을 담은 장소. 영화 속에서는 서울의

80년대 다방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수 중앙동에 있는 다방이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일본에서 여객기로 입국해 검색하는 장면이 담긴 장소. 영화 속에서는 김포공항 검색대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광양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검색대다. 몇 년 전 일본과 광양을 오가는 항로가 운영됐고, 종종 대형 크루즈가 입항하면 사용되지만 평상시에는 폐쇄돼 있다.

◇서남대병원
영화 속 수많은 부상자가 실려온 병원은 광주시 동구 불로동의 서남대병원이다. 이 병원은 당시 실제로 사망자들이 안치돼 있던 곳이기도 하다.

◇금남로
제작진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금남로다. 1980년대를 겪은 광주시민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부적인 묘사에 치중했다. 현대적으로 바뀐 지금의 금남로에서의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작진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민공원 옆 공터에 실제 크기로 80년대 5월 금남로를 재현했다.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분수대 등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영화에 사실감을 더했다.

택시운전사는 5·18 무대인 광주와 전남뿐 아니라 마산·순천·함천·대전·김천·양양·보령·의성 등 전국 각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실제로 순천에서 영업중인 ‘성동카공업사’.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 후 길거리에서 만난 구재식(류준열)과 일행들을 인터뷰하는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

중반기 지난 2017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13회 공연에 19만명 관람 지역예술가 데뷔전 역할 특출

광주 31팀 261명 참여...창작공연 13개 작품 자발적 공연 문화 확산...타 지자체 벤치마킹

‘관람객 19만여 명, 공연팀 155개, 창작공연 13개 작품 탄생, 체험팀 276개...’

지난 4월 22일 시작한 2017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지난 7월 22일까지 10회 행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프린지는 지역공연예술가 발굴과 데뷔전 역할을 특출히 했다. 총 213회 공연 중 광주지역 공연팀 31팀 261명 130회 참여했다. 특히 광주형 창작공연·거리예술가를 탄생시킨 ‘광주공동시리즈’와 ‘광주프린지학교’, 광주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아외상설 브랜드 공연·생활동아리단체 공연’, ‘자발적 참여 공연자를 찾습니다’ 등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창작공연 제작도 활발했다. 춤과 80년 5월을 결합시킨 ‘임을 위한 몸짓’, 성산별곡 퍼포먼스, 황홀한 변신, 5·18시민군상마임, 프린지학교 ‘빛’, 꽃잎, 유인원이야기, 그들이 나타났다, 컬러복싱 등 총 13개 작품이 탄생했다.

또한 광주고용노동청의 ‘일거양득 플래시몹’, 마살아츠 트릭킹의 ‘스트리트 배틀’, 광주 청소년 상상페스티벌의 ‘청소년 거리 버스킹’, 국제교류청소년연합의 ‘아프리카 댄스’, 지하철예술무대무용단의 악기연주 등도 눈길을 끌었다. 장르별로는 마술, 서커스, 난버널, 버블, 행위예술 등 다른 장르에 비해 포괄적인 세부 장르를 포함한 퍼포먼스 공연이 39.8%를 차지했으며 음악 17.6%, 댄스 11.7%, 무용 8% 순이었다.

프린지 무대가 아닌 광장 한 곳에서 혼자 공연을 하고 가는 자발적 버스킹 공연자들이 생겨난 것도 반가운 변화다. 프린지가 열리는 날 8~10명씩 그룹을 만들어 금남로 공연이나 5·18민주광장 종각 인근에서 공연을 하는 광주 버스킹 모임이 자주 볼 수 있다.

타 지자체에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벤치마킹 오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대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거창관광홍보 기자단, 달빛동맹 관계자, 타 지역 공연기획자들이 광주를 찾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또 최고 코믹마임 ‘만스케극단’ 초청

8월 프린지페스티벌 12일 5·18민주광장

광주프린지페스티벌 8월 두번째 행사가 12일 오후 7시~9시30분까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가들을 초청해 글로컬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공연팀은 아시아 최고의 코믹마임 예술가로 유명한 ‘만스케극단(일본)’공연이다. ‘만스케극단’의 단원 고지마야 만스케는 ‘태극마임페스티벌(방콕 스트리트쇼)’을 10년 넘게 이끌어 온 예술감독으로 아시아 마임계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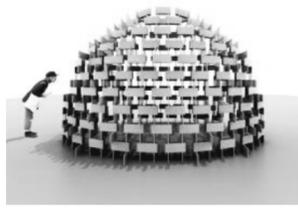
또한, 영국, 스위스, 스페인, 러시아 등 세계 20개국에서 공연을 선보인 ‘퍼포먼스(한국)’의 ‘레인보우쇼’와 한국 최초 부두 무용가인 서승아 씨의 ‘지신무’ 공연도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광주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선옥 교수와 무용학과 학생들이 4개월 연습 끝에 첫 공연을 선보이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새로운 창작공연 ‘남행열차’(돈음무용단)와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하는 프린지학교 ‘컬러복싱’(Others팀), 현실에 지친 어른들도 다시 동심을 되찾게 해 줄 ‘구름치기’(마임동화)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http://fringefestival.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건축워크숍 ‘너와돔 파빌리온’

문화전당 26~27일 어린이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어린이를 위한 건축워크숍 ‘너와돔 파빌리온’을 오는 26~27일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에서 개최한다.

‘너와돔 파빌리온’은 일본 건축가 ‘쿠마 켄고’가 한국 전통 건축의 너와 지붕에서

착안하여 설계한 돔이다.

건축가와 함께 건축물 구축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참가 대상은 초등 4~6학년 생이다. 정원은 20명이며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다.

첫째 날은 너와돔 파빌리온의 구축원리

및 디자인 개념에 관한 강연과 파빌리온의 모듈을 조립해보는 현장작업을, 둘째 날에는 너와돔 파빌리온 모듈을 조립하여 결합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완성품은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체험관에 27일부터 상설 전시된다.

접수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 및 콜센터(1899-55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와 규 전문점
참숯가마 돼지갈비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열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